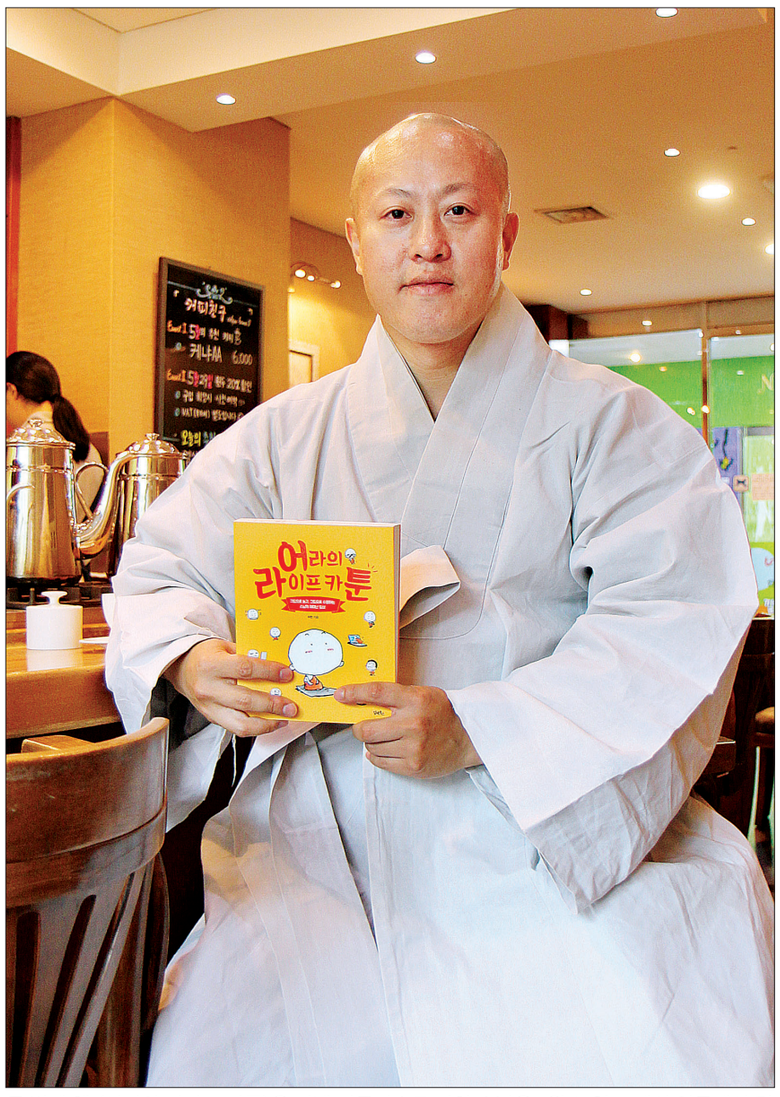


두 번째 책 〈어라의 라이프 카툰〉을 펴낸 카투니스트 지찬 스님을 5월 16일 조계사 인근에서 만나 발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자탄승' 어라 스님의 일상 수행기 엿보기

〈자전거 탄 승려〉

카투니스트 지찬 스님 〈어라의 라이프 카툰〉 발간

'만화 그리는 스님' 지찬 스님이 두 번째 책 〈어라의 라이프 카툰〉으로 돌아왔다. 사실 지찬 스님이란 법명보단 '어라 스님'이 더 익숙하다. 스님의 별칭이자 스님이 그리는 만화 캐릭터의 이름이 '어라'다. 2등신과 가분수 머리 등 귀여운 생김새로 큰 인기를 끌었던 동자승 어라 스님은 이번 책에서는 조금 진화(?)한 형태의 5등신으로 등장하기도, 또 인형으로 제작돼 사진 속에 담기기도 했다. 자전거도 탔다. 일명 '자탄승(자전거를 탄 승려)'이다. 5월 16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지찬 스님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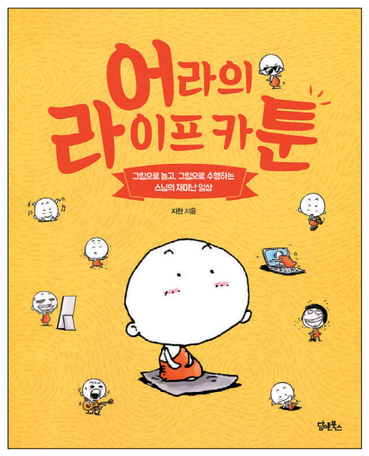
"자전거를 타면 가는 동안의 풍경, 예기치 못한 상황, 만나는 사람 등 모든 것들이 만화의 새로운 소재가 돼요. 걷는 것보단 빠르고 대중교통보단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단 장점이 있죠. 나중엔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를 누비며 '만화 여행기'를 엮고 싶단 생각도 있어요."

스님의 만화는 곧 스님의 일상이다. '어라'란 캐릭터로 스님 본인의 소소한 얘기를 전한다. 인기 드라마나 예능을 즐기는 우리네 일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사유하는 법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님의 시선에 따라 만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책 제목도 원래 〈어라, 그렇게 봄〉으로 짓고 싶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시선자체에 머물지 않고 사유와 분별판단이 이뤄지면 더 아름다운 불교적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깊이 보다 보면 '봄'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봄(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으면 시선이 머무는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어라'란 캐릭터 이름이 탄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어라'는 불교에서 대상을 그냥 보지 않고 관(觀)한다는 의미의 '이뭣고'와 같은 의미다. 지찬 스님은 "내 말버릇 중 하나가 '어라?'다. 그 물음은 세상을 궁금해 하며 사유하는 과정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면서 "'이뭣고'와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라'란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님은 만화를 그리면서도 일상에서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다. 만화를 그리는 과정이 하나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만화는 버릴 수 있어도 수행은 버릴 수 없다는 스님만의 고집이 있다. 지찬 스님은 수행이 밑받침돼야 만화도 불교를 알리는 방편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라의 라이프 카툰〉 담앤북스 발간.

〈어라, 그런대로…〉 후 2번째 발간
2등신 어라, 5등신으로 표현하기도
총 4부… 여행지·혼자노는법 등
5월 26·27일 부산서 북콘서트

그렇다면 지찬 스님의 앞으로 꿈은 무엇일까? 카투니스트로서 스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다.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말할 때 지찬 스님은 꿈 많은 사춘기 소년처럼 눈빛이 반짝거린다. '1급 비밀'이라며 털어놓은 스님의 다음 책 주제는 바로 '풍수'다.

"풍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풍수방향을 알려주고 그 과정을 만화로 그리는 거예요. 생각 만해도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새로 배우는 것들은 새로운 만화 소재가 되니 제가 배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웃음)."

어라 스님은 오는 5월 26일 오전 11시 부산 대광명사에서 발간 기념 사인회 및 법회, 27일 오후 3시 부산 담앤북스 1층 카페에서 사인회 및 북콘서트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어라의 라이프 카툰〉은 4부 구성으로 이뤄진다. 1부는 어라가 혼자 노는 법, 2부는 어라가 다닌 여행지, 3부는 어라가 만난 사람·고양이·어린아이에 대한 에피소드, 4부는 깨달음과 명상에 대한 주제다. 담앤북스 288쪽 13,000원.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새로 지정된 국보·보물 50건 일반에 공개

2014~2016년 보물·국보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특별전

불교미술의 정수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보물 제1903호) 등 2014~2016년 보물 및 국보로 지정된 50건 문화재가 한 자리서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함께 2014~2016년 새롭게 지정된 국보와 보물을 소개하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新國寶寶物展'를 7월 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지난 3년간 새로 지정된 121건의 국보와 보물 중 50건의 문화유산이 대중에 공개된다.

전시는 크게 △신앙 △기록 △삶 총 3가지 주제로 열린다.

1부 '신앙, 간절히 바라다'는 선조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문화재들을 소개해 개인적 행복과 사회 및 국가의 안녕을 바랐던 염원을 읽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보물 제1823호 〈농경문청동기〉와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이 소개된다.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2부 '기록, 역사에 새기다'는 선인들이 기억을 남기는 중요한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 이와 관련한 문화재를 다수 소개한다. 보물 제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 궤, 국보 제319호 동의보감 등 직접 만나볼 수 있다.

3부 '삶, 예술로 남다'는 다양한 재질로 제작된 삼국시대 장신구, 고려청자와 금속 공예품, 조선시대 그림과 글씨 등이 전시된다. 보물 제1921호 양산금조총 출토 유물일괄과 보물 제1899호 은제도금화형탁잔, 보물 제1430-2호 봉수당진찬도 등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유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전하면서도 작품에 내재된 역사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면서 "작품에 숨겨진 우리 선인들의 이야기를 찾다보면 어느새 선인들의 마음이 곧 보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세대를 뛰어넘는 수묵의 향연

탑골미술관 초대전 '경계를 넘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각기 다른 수묵, 서예 작품으로 한 자리에서 만난다.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제5회 탑골미술관 기획초대전 '경계를 넘어'를 5월 18일~6월 16일 연다. 정광희, 박한샘 현대 수묵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기획초대전에선 두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서예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정광희 작가는 수묵추상 작품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조형 실험을 통해 수묵추상의 현대적 변용을 다채롭게 드러낸다. 또 박한샘 작가는 지·필·묵에 대한 철저하고 진지한 실험으로 실경산수화를 그리면서도 전통과는 다른 현대적 해석을 가미하는 것이 돋보인다.

전시 기간 중엔 두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된다. 25일 오전 10시 30분엔 정광희 작가, 6월 8일 오전 10시엔 박한샘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관람객들이 수묵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5월 30~31일 오후 1시 30분 '부채 그림 그리기', 5월 29일~6월 2일 오전 10시 30분 '탑골 서당'이 각각 진행된다.


'속리산3', 박한샘, 한지에 수묵, 162×260cm, 2017

박아름 기자


장경사, 최용백 作.

남한산성의 과거와 현재, 사진에 담아

만해기념관, '다큐멘터리 사진전 남한산성' 특별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진전이 열린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명예관장 전보삼)은 최용백, 최중욱, 조선운, 최태종, 민주식 5명의 사진작가를 초대해 '다큐멘터리 사진전 남한산성' 특별전을 5월 29일까지 기획전시실 1층 갤러리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들이 각자의 철학과 시각으로 바라본 남한산성의 모습 총 21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5개 섹션으로 △1부(최용백) 사찰의 미소-망월사, 장경사 △2부(최중욱) 성곽의 숨결 △3부(조선운) 옛길의 흔적 △4부(최태종) 역사와 소통하다 △5부(민주식) 전통의 혼(魂)으로 나뉜다.

박아름 기자

